



예거 르쿨트르, 더욱 다양해진 랑데부 소나티나 출시 새로운 3 부작으로 선보이는 '피스풀 네이처' 시리즈

-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시대를 초월하는 수공예 기술인 래커 작업과 미니어처 페인팅, 켄세팅을 통해 전통적인 동양의 상징주의를 담아 자연에 찬사를 보내는 컬렉션
- 동서양의 예술적 전통과 수공예 기술을 결합하여 정교하게 장식된 다이얼과 고도로 정교한 메커니즘이 시대를 초월한 세련된 스타일로 여성성 강조

수 세기 동안 자연 세계를 묘사한 동양의 예술적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예거 르쿨트르는 랑데부 소나티나 '피스풀 네이처(Peaceful Nature)' 시리즈의 세 가지 새로운 타임피스로 더욱 풍성해진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정밀함과 예술성을 기리며 여성스러운 매력을 드러내는 새로운 3 부작 시리즈는 동서양의 예술적 전통을 결합했으며, 진귀한 장식 공예의 풍부함과 하이 워치메이킹의 기술적 정교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랑데부 소나티나 3 부작은 동양의 예술 전통에서 자연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에 경의를 표하며,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Métiers Rares®, Rare Handcrafts™)에서 마스터한 세 가지 장식 공예 기술인 미니어처 페인팅과 래커 작업, 켄세팅 기법을 선보입니다.

비할 데 없는 투명감과 풍부한 광택을 지닌 래커는 동양 공예와 유럽 스타일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신석기 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공예 기술인 *우루시(urushi)* 래커는 16 세기에



아시아에서 서양으로 처음 전해졌습니다.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 기술은 이후 유럽의 예술과 취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한 힘과 특성을 지닌 동식물은 동양 문화에서 항상 상징적인 소재였으며, 자연 풍경은 동양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식물의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면밀히 연구한 예술가들은 수 세기 동안 이를 매우 섬세하고 정확한 디테일로 재현해 왔습니다. 풍경화는 “꽃과 새를 주제로 한 그림”(일본에서는 *가초가*, 한국에서는 *화/조화*로 알려짐)으로 정점에 이르렀지만, 대상은 꽃이나 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요소들이 반드시 함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디자이너와 메티에 라르® 장인은 래커 작업, 미니어처 페인팅, 점세팅 기법을 완벽한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계의 다이얼을 완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상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3 개의 다이얼, 3 개의 이미지

피스풀 네이처 - 크레인: 진한 블루 그린 래커를 배경으로 학이 소나무 위를 맴돌고 있으며, 다이얼 레이아웃의 곡선을 따라 날개가 원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상서로운 징조로 숭배받는 학은 행복과 솟아오르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천 년을 산다고 알려져 장수를 상징하며,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결혼식 장식에 자주 사용되어 오랫동안 평화롭게 이어지는 부부의 삶을 나타냅니다. 상록수인 소나무 역시 장수와 미덕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피스풀 네이처 - 킹피셔: 골드 브라운 다이얼에 섬세하게 페인팅된 붉은 모과 나뭇가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매년 봄에 피어나는 꽃으로 다시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이 또한 장수를 상징합니다. 붉은 꽃이 만발한 가운데 물총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물총새는 아름다움과 미덕, 충실과 헌신, 성실과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여 거의 모든 문화 전통에서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피스풀 네이처 - 코이: 블랙 다이얼에 선명한 주황색 잉어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연못 아래에서 유영하고 있으며, 봄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가지가 프레임을 감싸고 있어 로맨스와 여성스러운 매력을



상징합니다. 버드나무의 섬세함은 잉어의 힘과 균형을 이룹니다. 잉어는 결단력과 용기, 역경에 맞서는 인내를 상징하며 성공과 풍요,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집니다.

기술력과 예술성, 무한한 인내심의 역작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다이얼의 정교한 구성은 수 주에 걸쳐 뛰어난 기술과 정밀함을 갖춘 장인에 의해 구현되었습니다. 장인은 깨끗한 다이얼 표면을 준비한 다음, 래커의 그라데이션 컬러를 층별로 구성하여 풍부하게 반짝이는 배경 작업을 시작합니다. 래커 층이 완전히 굳은 후에야 페인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인은 눈과 손에만 의지하여 *마키에* 래커(일본 에도 시대에 생겨난, 금가루나 금박을 젖은 옷칠에 뿌려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는 기법) 효과를 내기 위해 골드 래커 페인트로 작은 점을 찍습니다. 다음으로 캔버스에 유화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초소형 사이즈에 한 번에 하나의 섬세한 붓놀림으로 세밀한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약 35-40 시간의 고되고 집중된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골드 조각*을 정성스럽게 장식해 각 이미지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장인들의 개성과 열정으로 가득한 미니어처 작품은 미묘하게 다른 생동감 넘치는 디테일로 움직임과 시각적 깊이가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그림에 광택을 더하기 위해 반투명 래커를 여러 겹으로 코팅하여 마무리합니다.

구성면에서 랑데부 소나티나의 다이얼은 비대칭이면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컬렉션의 시그니처인 플로럴 핸즈와 숫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 숫자의 크기를 달리해 초승달이 섬세한 그림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정교한 타원형 다이아몬드 링이 애플리케 숫자 아래로 이어져 페인팅된 이미지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베젤의 화려한 그레인 세팅 다이아몬드 원이 완성도를 더해줍니다. 타원형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각 이미지 중앙의 낮/밤 인디케이터는 태양과 달, 별의 끊임없는 원무를 펼쳐 보이며 24 시간마다 한 바퀴 회전합니다.



다이얼 테두리에 세팅된 섬세한 골드 스타는 특별한 약속 시간을 표시해주며, 케이스 측면에 세팅된 두 번째 크라운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시계 메커니즘에 숨겨진 공을 타격해 멜로디 차임이 한 번 울리며 약속 시간을 알려줍니다.

차임 컴플리케이션과 낮/밤 인디케이터가 장착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칼리버 735는 여성미를 서정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한 랑데부 소나티나를 위해 특별 개발되어 탁월한 기술적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더없이 정교하고 섬세한 메커니즘의 디테일이 투명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타임피스는 다이얼 컬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같은 컬러의 펄 마감 악어 가죽 스트랩 버전으로 출시되며, 핑크 골드 폴딩 버클을 사용하여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완성된 특별한 다이얼이 장착되어, 여성스러운 품격이 흘러넘치는 랑데부 소나티나 '피스폴 네이처' 시리즈는 기술적 역량과 뛰어난 디자인 모두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 장인의 놀라운 기술력을 입증합니다. 수 세기 동안 예술계에서 매우 중요시했던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새로운 랑데부 소나티나 타임피스는 시리즈 별로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되며,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랑데부 소나티나 피스폴 네이처 - 크레인

랑데부 소나티나 피스폴 네이처 - 킹피셔

랑데부 소나티나 피스폴 네이처 - 코이

크기: 지름 38.2mm x 두께 10.59mm

칼리버: 셀프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735

기능: 시, 분, 초, 랑데부 인디케이터, 낮/밤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40 시간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케이스백: 오픈

방수: 5bar

스트랩: 유광 악어 가죽

다이아몬드: 160 개(1.86 캐럿)

제품 번호: Q35924J1/J2/J3

각각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STELLAR ODYSSEY 소개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균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예거 르쿨트르는 몰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Stellar Odyssey)를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